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통계로 보는 여성

• **통계로 보는 여성 건강**
한진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통계로 보는 여성 건강[1)]

한진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2014~2024년 성별 건강 행태를 보면, 고위험음주율과 흡연율, 비만 유병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성별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 또한, 건강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좋지 않은 편이며, 건강관리 현황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거나 여성이 더 높은 수준임.
  - 2024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8.6%, 남성 18.6%로, 남성은 2014년보다 낮아진 반면 여성은 2020년 이후 상승해 2014년보다 높아졌으며, 19~29세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짐. 현재흡연율은 남성이 2014년 43.2%에서 2024년 28.5%로 감소했고, 여성은 4.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 비만 유병률은 남성이 2024년 48.8%로 2014년과 비교해 높아졌으며(11.0%p), 40대 남성은 61.7%로 나타남. 여성은 2024년 26.2%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남성보다 높았음.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 49.3%, 남성 54.7%로 남녀 모두 2014년보다 낮았음.
  - 건강 인식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낮고(2024년 여성 33.1%, 남성 36.6%), 스트레스인지율은 높음(2024년 여성 32.9%, 남성 25.5%). 스트레스는 30대 이하에서 성별 격차가 컸고, 30대 여성이 41.5%로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19~29세와 70세 이상에서 격차가 컸음.
  - 건강검진 수진율은 2024년 여성 72.5%, 남성 70.3%로 남녀 모두 높아졌고, 특히 30대 이하 여성의 증가폭이 컸음. 암 검진 수진율은 2024년 여성 61.4%, 남성 46.7%로 여성이 높았음.

1) 본 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센터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제3장 "건강" 임. 2026년 분기별로 총 4장의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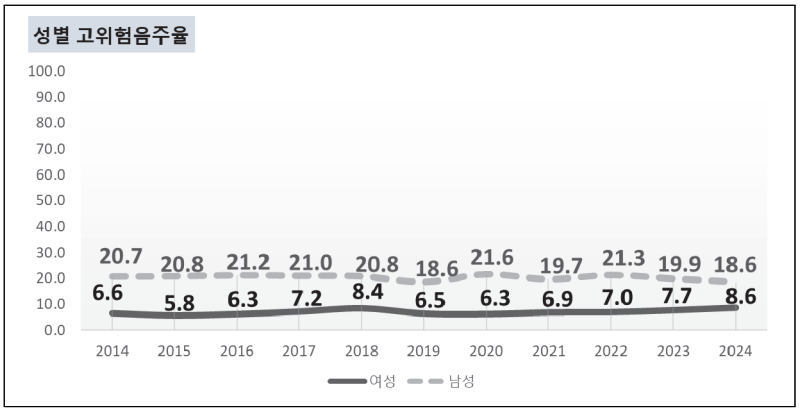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음주, 흡연, 유산소 신체활동, 비만, 주관적 건강인지 정도, 스트레스 인지율 그리고 건강검진 현황을 통해 성별 연령별 건강 행태의 변화를 살펴봄

■ 음주

□ 고위험음주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 40~60대에서 차이가 큰 편

• (고위험음주율) 2024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8.6%, 남성 18.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0%p 낮음.
  - 2023년 대비 2024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0.9%p 증가, 남성 1.3%p 감소함.
  - 2014년 대비 2024년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2.0%p 증가, 남성 2.1%p 감소함.
  - 여성은 202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로 2014년보다 높은 수준이며, 남성은 등락이 있으나 2014년과 비교해 낮은 수준임.
    * 여성 고위험음주율(%): ('14년) 6.6% → ('19년) 6.5% → ('24년) 8.6%
    * 남성 고위험음주율(%): ('14년) 20.7% → ('19년) 18.6% → ('24년) 18.6%

(단위: %)



주 :1)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임.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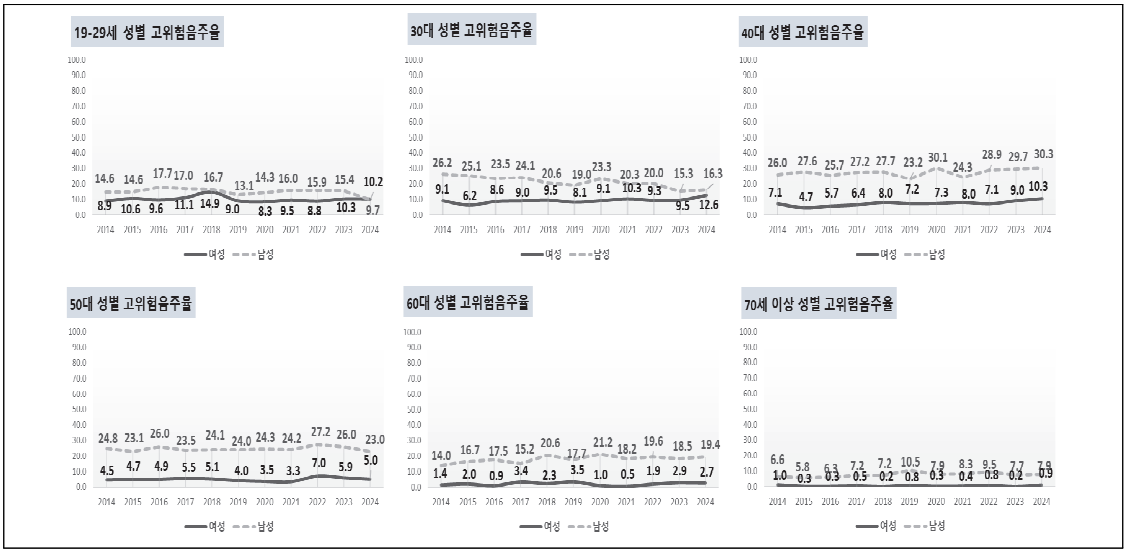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고위험음주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고위험음주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 기간에 걸쳐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위험음주율이 낮게 나타남. 다만, 2024년 19~29세 고위험음주율은 여성 10.2%, 남성 9.7%로 여성이 남성보다 0.5%p 더 높음.

- 2024년 여성과 남성 간 고위험음주율 차이는 40~60대에서 상대적으로 크고,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작은 편임. 특히 40대는 여성 10.3%, 남성 30.3%로 그 격차가 20.0%p로 가장 큼. 30대 이하에서는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이 낮은 수준이며, 70세 이상은 여성과 남성 모두 고위험음주율이 낮아,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남녀 간 차이가 작은 편임.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 30대 이하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은 2014년에 비해 낮아진 반면 여성은 높아지면서 2024년 남녀 간 차이는 19~29세 0.5%p, 30대 3.7%p로 나타남. 40대 이상은 남녀 모두 등락은 있으나 성별 격차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임.

(단위: %)



주 :1)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임.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2] 성별 연령별 고위험음주율(2014-2024)

■ 흡연

□ 현재흡연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며,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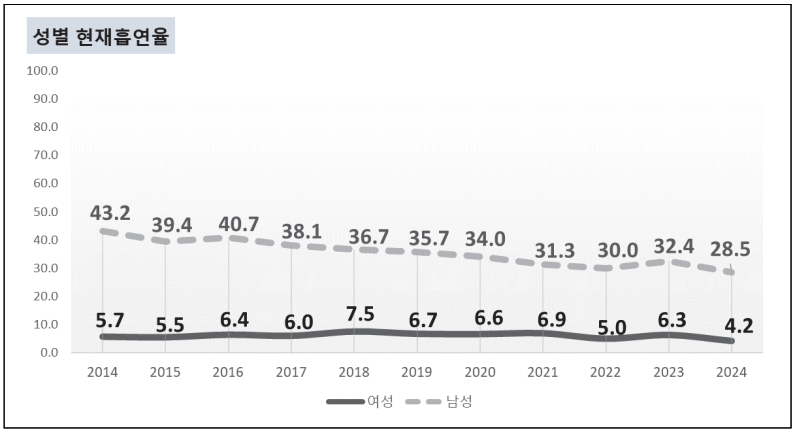
- (현재흡연율) 2024년 현재 흡연율은 여성 4.2%로 남성 28.5% 여성이 24.3%p 낮음.
  - 2023년 대비 2024년 현재 흡연율은 여성 2.1%p, 남성 3.9%p 감소함.
  - 2014년 대비 2024년 현재 흡연율은 여성 1.5%p, 남성 14.7%p 감소함.
  - 여성의 현재 흡연율은 201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남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4년 43.2%에서 2024년 28.5%로 낮아짐.

* 여성 현재흡연율(%): ('14년) 5.7% → ('19년) 6.7% → ('24년) 4.2%
* 남성 현재흡연율(%): ('14년) 43.2% → ('19년) 35.7% → ('24년) 28.5%

- 한편, 현재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기타 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을 의미하는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4년 여성 6.9%, 남성 36.0%로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분율을 의미하는 '현재흡연율'에 비해 여성은 2.7%p, 남성은 7.5%p 높게 나타남(〈표 1〉 참고).

(단위: %)



주 : 1) 현재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분율임.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3] 성별 현재 흡연율(2014-2024)

<표 1> 성별·연령별 담배제품 현재사용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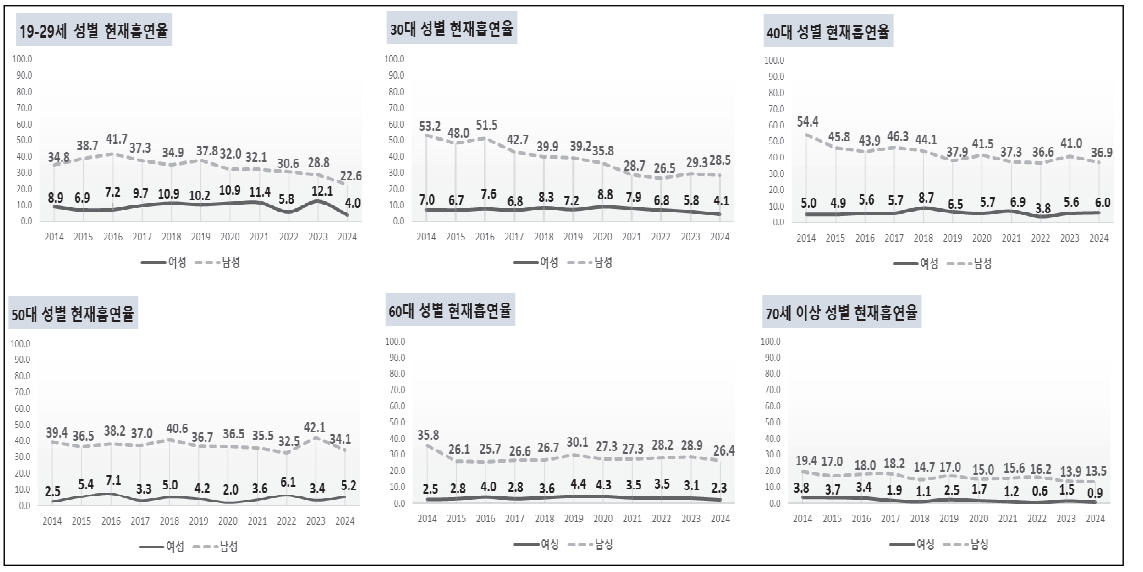
(단위: %)

항목	연령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	전체 (표준화)	7.5	39.7	7.5	38.7	8.5	36.7	7.2	36.6	8.3	38.9	6.9	36.0
	19-29세	10.9	40.0	13.1	36.4	14.9	37.4	9.4	37.6	16.2	33.9	9.0	29.5
	30-39세	9.5	45.0	9.8	44.4	9.8	37.2	9.7	38.9	7.8	42.2	7.5	40.1
	40-49세	6.8	45.7	6.1	47.5	7.6	44.3	6.7	42.7	8.0	48.7	8.8	47.3
	50-59세	4.5	38.0	2.2	38.3	4.4	38.5	6.3	36.9	4.0	44.4	5.6	39.1
	60-69세	4.4	31.3	4.5	28.0	3.5	28.7	3.6	28.6	3.1	30.4	2.7	27.6
	70세 이상	2.5	17.3	1.7	15.0	1.2	16.2	0.6	16.4	1.5	14.0	0.9	13.7

주 : 1)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현재 일반담배(궐련)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는 기타 담배를 사용한 적이 있는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현재흡연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 기간에 걸쳐 전 연령대에서 여성의 현재흡연율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남.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30~50대에 비교적 큰 편이며, 60대 이후에는 남성의 현재흡연율도 낮아지면서 그 차이도 작아지는 양상을 보임.
  - 2024년 현재흡연율은 30~60대까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0%p 이상 높아 그 차이가 큰 편임. 특히, 40대의 현재흡연율은 여성 6.0%, 남성 36.9%로 여성과 남성 간 30.9%p로 가장 큼. 19~29세와 70세 이상에서도 남성의 현재흡연율이 여성보다 각각 18.6%p, 12.6%p 더 높음.
  - 2014년 이후 연령대별 변화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현재흡연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2014년과 비교해 30대 남성은 24.7%p, 40대 남성은 17.5%p가 감소해 감소폭이 큰 편임. 여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40~50대 여성은 2014년과 비교해 각각 1.0%p, 2.7%p 증가함.

(단위: %)



주 : 1) 현재흡연율은 평생 일반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일반담배(궐련)를 피우는 분율임.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4] 성별 연령별 현재흡연율(2014-2024)

■ 신체활동 및 비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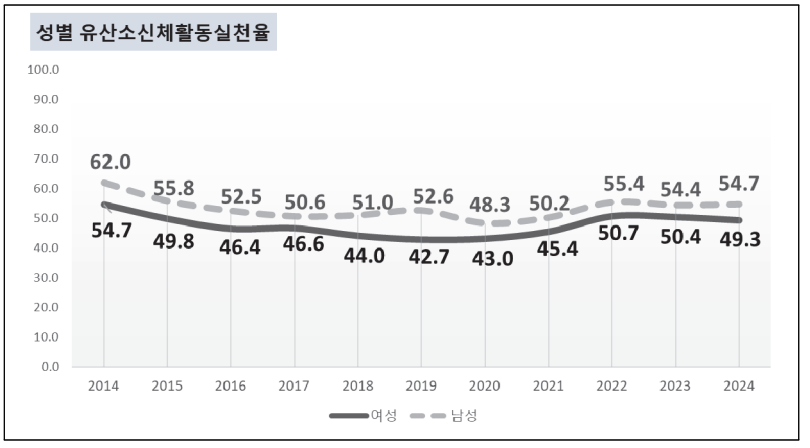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

•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2024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 49.3%, 남성 54.7%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5.4%p임.

- 2023년 대비 2024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 1.1%p 감소, 남성 0.3%p 증가함.
- 2014년 대비 2024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여성은 5.4%p, 남성은 7.3%p 감소함.
- 여성과 남성 모두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지다 최근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임.

  *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14년) 54.7% → ('19년) 42.7% → ('24년) 49.3%
  *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14년) 62.0% → ('19년) 52.6% → ('24년) 54.7%

(단위: %)



주 : 1)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5] 성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을 살펴본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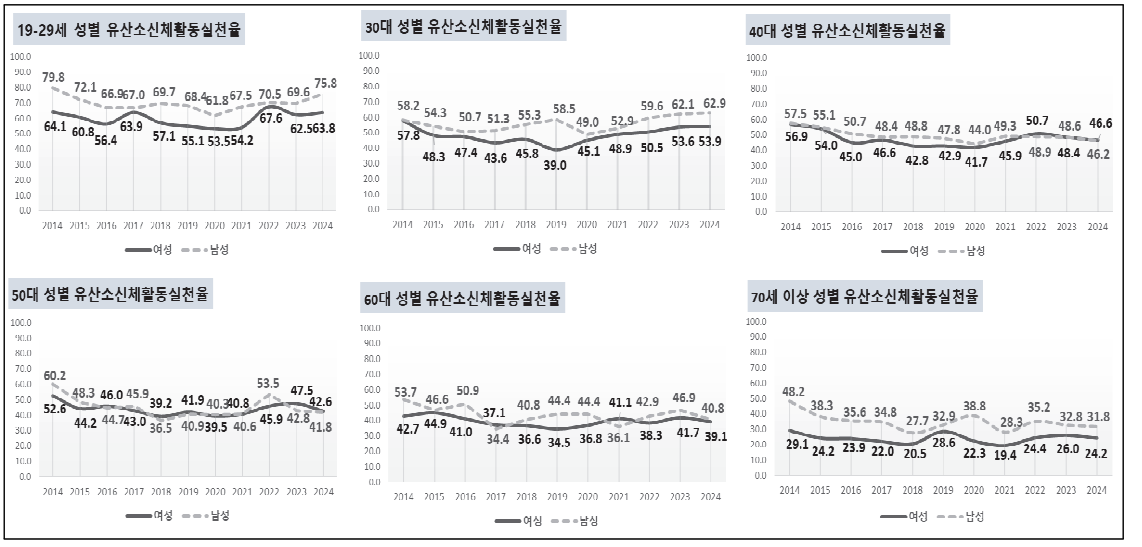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30대 이하와 70세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고, 40~60대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수준임.

• 2024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19~29세가 여성 63.8%, 남성 75.8%로 가장 높

고, 70세 이상이 여성 24.2%, 남성 31.8%로 가장 낮음. 19~29세는 여성과 남성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남녀 간 차이도 12.0%p로 큼.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기간 중 등락은 있으나 30대 남성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2014년과 비교해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 감소함. 특히 50대 이상 남성의 감소폭이 큰 편으로 50대 18.4%p, 70세 이상 16.4%p, 60대 12.9%p 감소함. 여성은 40대 10.3%p, 50대 10.0%p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소폭이 큰 편임.

(단위: %)



주 : 1)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분율.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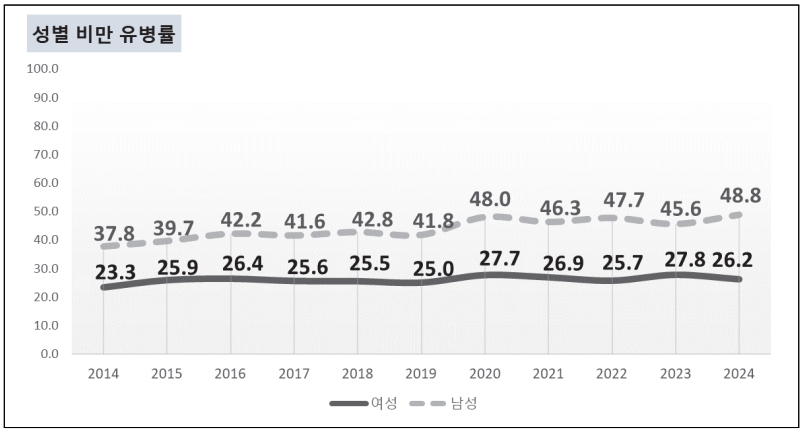
[그림 6] 성별 연령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추이(2014-2024)

□ 비만 유병률은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반면, 남성은 40대에 가장 높고 이후 연령대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비만 유병률) 2024년 비만 유병률은 여성 26.2%, 남성이 48.8%로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22.6%p임.
  - 2023년 대비 2024년 비만 유병률이 여성은 1.6%p 감소, 남성은 3.2%p 증가함.
  - 2014년 대비 2024년 비만 유병률이 여성은 2.9%p, 남성은 11.0%p 증가함.
  - 여성의 비만 유병률은 큰 변화는 없는 편이고, 남성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 여성 비만 유병률(%): ('14년) 23.3% → ('19년) 25.0% → ('24년) 26.2%

* 남성 비만 유병률(%): ('14년) 37.8% → ('19년) 41.8% → ('24년) 48.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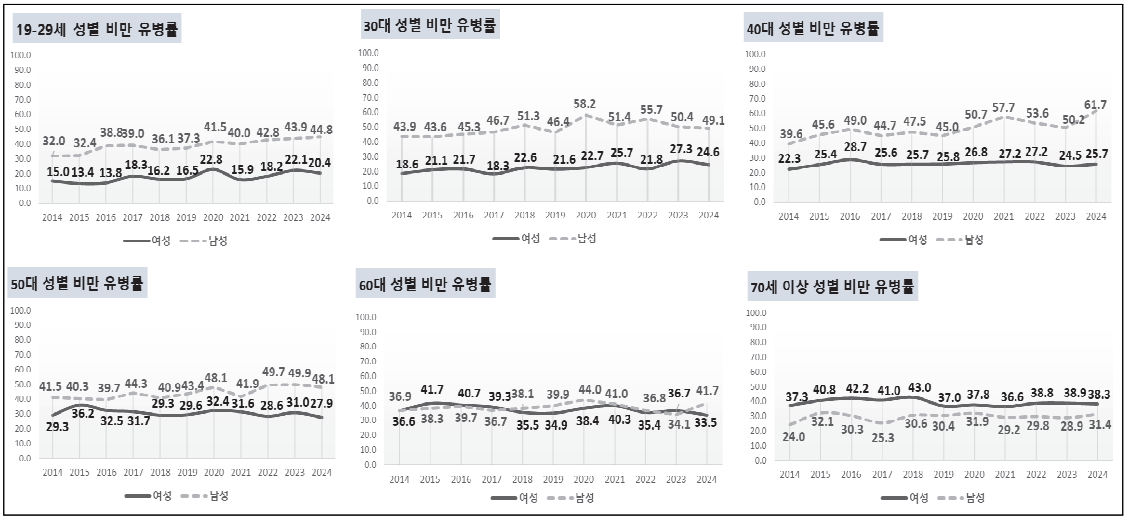


주 : 1)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임.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7] 성별 비만 유병률(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비만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임.
  -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성과 남성 간 격차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 70세 이상은 여성의 비만 유병률이 남성보다 더 높음.
  - 2024년 여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19~29세 20.4%, 70세 이상 38.3%로 나타남. 남성은 40대 61.7%로 가장 높고 이후 낮아져 70세 이상이 31.4%로 가장 낮음. 남녀 간 비만 유병률은 50대 이하에서 20%p 이상으로 큰 편이며, 특히 40대는 여성 25.7%, 남성 61.7%로 남녀 간 격차가 36.0%p로 가장 큼.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남녀 모두 등락은 있으나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2014년과 비교해 보면, 2024년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해 특히 40대 남성은 22.1%p 증가함. 여성은 50~6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높아졌지만, 남성에 비해 변화폭이 크지 않은 편임.

(단위: %)



주 : 1)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임.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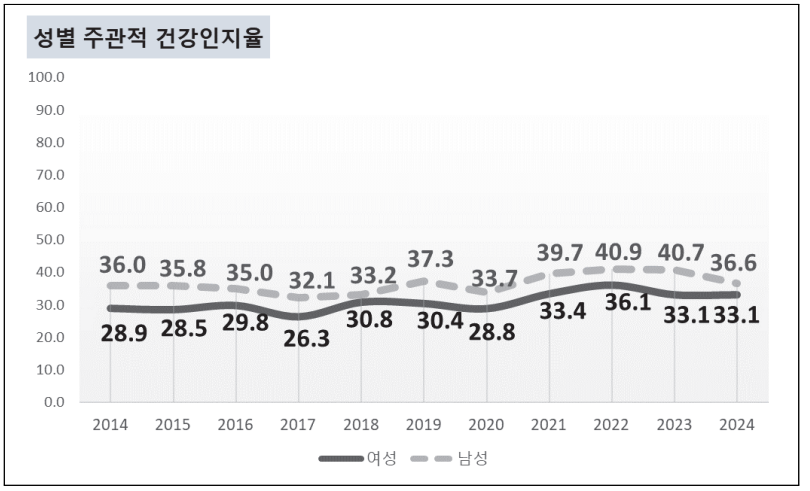
[그림 8] 성별 연령별 비만 유병률(2014-2024)

■ 건강 인식

□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편이며, 19~29세, 70세 이상에서 성별 차이가 큰 편

- (주관적 건강인지율) 2024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여성 33.1%, 남성은 36.6%로 여성이 남성보다 3.5%p 낮음.
  - 2023년 대비 2024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여성은 변화가 없고, 남성은 4.1%p 감소함.
  - 2014년 대비 2024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여성이 4.2%p, 남성이 0.6%p 증가함.
  - 2014년 이후 여성과 남성 모두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연도별로 등락이 있고, 여성은 대체로 30% 수준이고, 남성은 여성보다 높은 수준임.
    * 여성 주관적 건강인지율(%): ('14년) 28.9% → ('19년) 30.4% → ('24년) 33.1%
    * 남성 주관적 건강인지율(%): ('14년) 36.0% → ('19년) 37.3% → ('24년) 36.6%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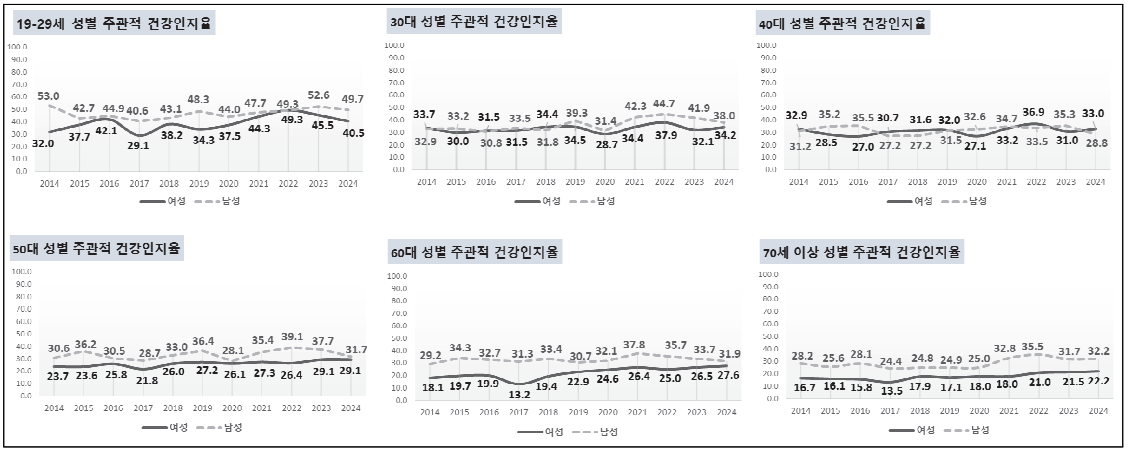


주 : 1)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임.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9]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주관적 건강인지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반적으로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높은 수준이며, 30~40대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24년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19~29세 여성 40.5%, 남성 49.7%로 가장 높지만 남녀 간 격차도 9.2%p로 큰 편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대체로 낮아지고, 30~60대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으로 남녀 간 격차도 5%p 이내로 나타남. 70세 이상은 여성 22.2%, 남성 32.2%로 남녀 간 격차가 10.0%p로 큰 편임.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19~29세의 연도별 등락이 큰 편이고 2014년과 비교해 여성은 8.5%p 증가한 반면, 남성은 3.3%p 감소함. 30~50대는 연도별 등락이 있으며, 2014년과 비교해 30대 남성은 5.1%p, 50대 여성은 5.4%p로 증가함. 60대 이상은 남녀 모두 2014년에 비해 주관적 건강인지율이 높아졌고 특히 60대 여성은 9.5%p 증가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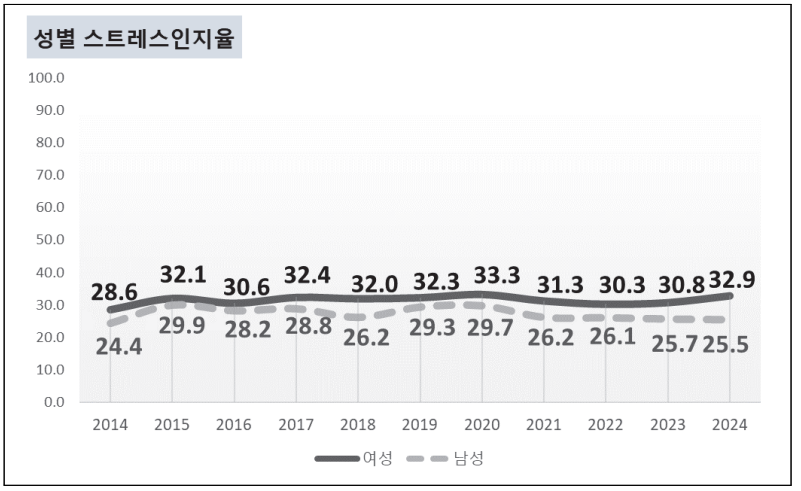
주 : 1)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임.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0] 성별 연령별 주관적 건강 인지율(2014-2024)

□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편이며 2024년 30대 이하에서 성별 차이가 큰 편

- (스트레스인지율) 2024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 32.9%, 남성은 25.5%로 여성이 남성보다 7.4%p 높음.
  - 2023년 대비 2024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이 2.1%p 증가하고, 남성은 0.2%p 감소함.
  - 2014년 대비 2024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이 4.3%p, 남성이 1.1%p 증가함.
  - 2014년 이후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은 등락은 있으나 3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
    * 여성 스트레스인지율(%): ('14년) 28.6% → ('19년) 32.3% → ('24년) 32.9%
    * 남성 스트레스인지율(%): ('14년) 24.4% → ('19년) 29.3% → ('24년) 25.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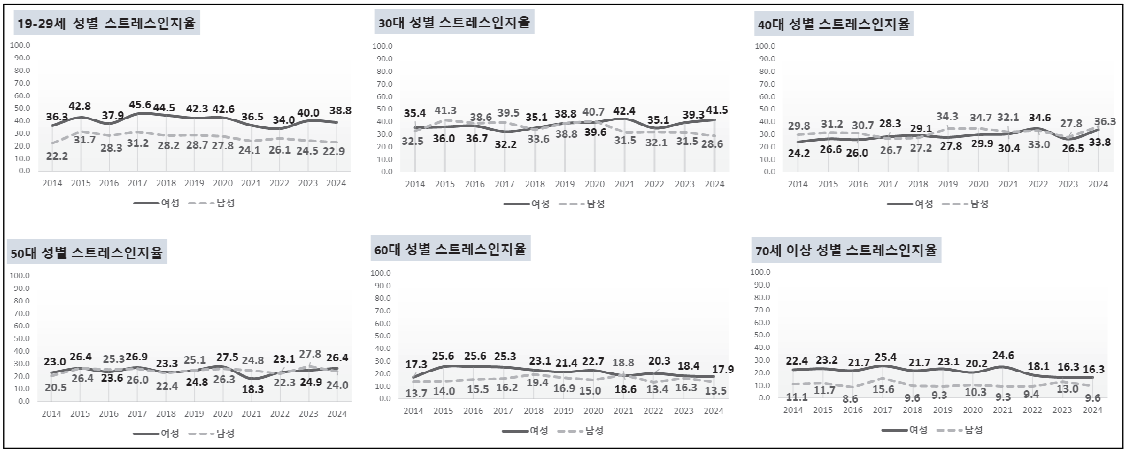


주 : 1) 스트레스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1] 성별 스트레스인지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스트레스인지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반적으로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임. 남녀 모두 대체로 30~40대에서 높고 60대 이상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2024년 스트레스인지율은 여성의 경우 30대(41.5%)가 가장 높고, 남성은 40대(36.3%)가 가장 높음. 여성과 남성 간 차이는 30대 이하에서 큰 편으로 특히 19~29세 15.9%p, 30대 12.9%p의 차이가 있음. 40~50대는 여성과 남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비슷한 수준임.
  - 2014년 이후 변화를 보면 19~29세는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높은 수준이며, 2014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음. 30대는 여성의 스트레스인지율이 2014년에 비해 6.1%p 증가한 반면 남성은 3.9%p 감소함. 40~50대는 남녀 모두 2014년과 비교해 스트레스인지율이 증가했고, 특히 40대 여성은 9.6%p 증가해 큰 편임. 60대는 남녀 모두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70세 이상은 여성은 2014년과 비교해 6.1%p 감소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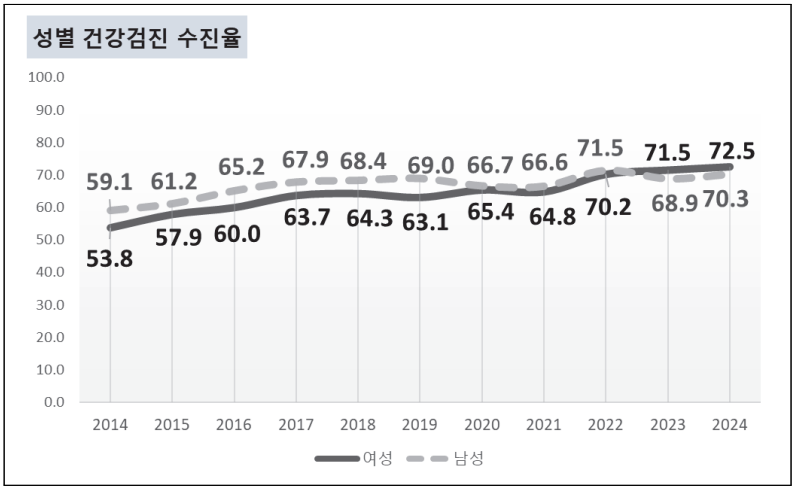
주 : 1) 스트레스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2] 성별 연령별 스트레스인지율(2014-2024)

□ 건강검진 수진율은 최근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 (건강검진 수진율) 2024년 건강검진 수진율은 여성 72.5%, 남성 70.3%로 여성이 남성보다 2.2%p 높음.
  - 2023년 대비 2024년 건강검진 수진율은 여성 1.0%p, 남성 1.4%p 증가함.
  - 2014년 대비 2024년 건강검진 수진율은 여성 18.7%p, 남성 11.2%p 증가함.
  - 2014년 이후 건강검진 수진율은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 여성 건강검진 수진율(%): ('14년) 53.8% → ('19년) 63.1% → ('24년) 72.5%
    * 남성 건강검진 수진율(%): ('14년) 59.1% → ('19년) 69.0% → ('24년) 7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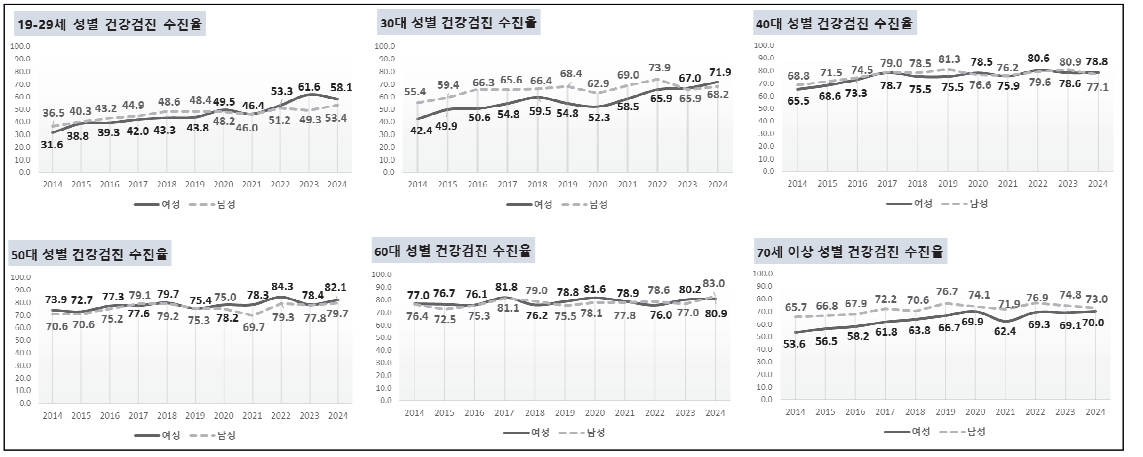


주 : 1) 건강검진 수진율은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3] 성별 건강검진 수진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건강검진 수진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반적으로 건강검진 수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70세 이상에서는 낮아짐. 40~60대는 남녀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검진 수진율이 높은 수준이며, 남녀 간 격차도 크지 않은 편임. 3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최근 여성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4년 건강검진 수진율은 여성은 50대 82.1%, 남성은 60대가 83.0%로 가장 높음. 50대 이하는 여성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60대 이상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건강검진 수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30대 이하 여성의 증가폭이 큰 편임. 19~29세는 남녀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14년과 비교해 여성 26.5%p, 남성 16.9%p 증가함. 30대는 남성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나, 2023년 이후 여성이 더 높아졌으며, 여성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2014년에 비해 29.5%p 증가함. 40~60대는 남녀 모두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70세 이상도 연도별 등락은 있으나 2014년에 비해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이며, 특히 여성은 16.4%p 증가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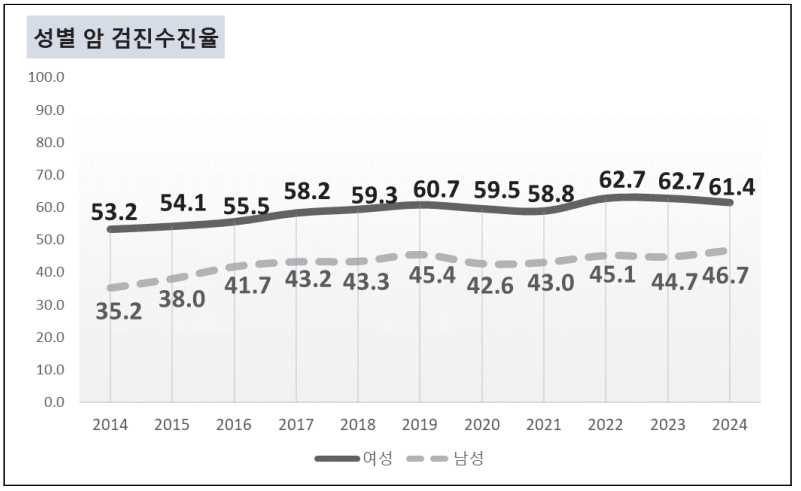
주 : 1) 건강검진 수진율은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분율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4] 성별 연령별 건강검진 수진율(2013-2023)

□ 암 검진수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40대 이하에서 성별 차이가 큰 편

- (암 검진수진율) 2024년 암 검진수진율은 여성 61.4%, 남성 46.7%로 여성이 남성보다 14.7%p 높음.
  - 2023년 대비 2024년 암 검진수진율은 여성이 1.3%p 감소, 남성은 2.0%p 증가함.
  - 2014년 대비 2024년 암 검진수진율은 여성 8.2%p, 남성 11.5%p 증가함.
  - 2014년 이후 암 검진수진율은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암 검진수진율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여성 암 검진수진율(%): ('14년) 53.2% → ('19년) 60.7% → ('24년) 61.4%
    * 남성 암 검진수진율(%): ('14년) 35.2% → ('19년) 45.4% → ('24년) 46.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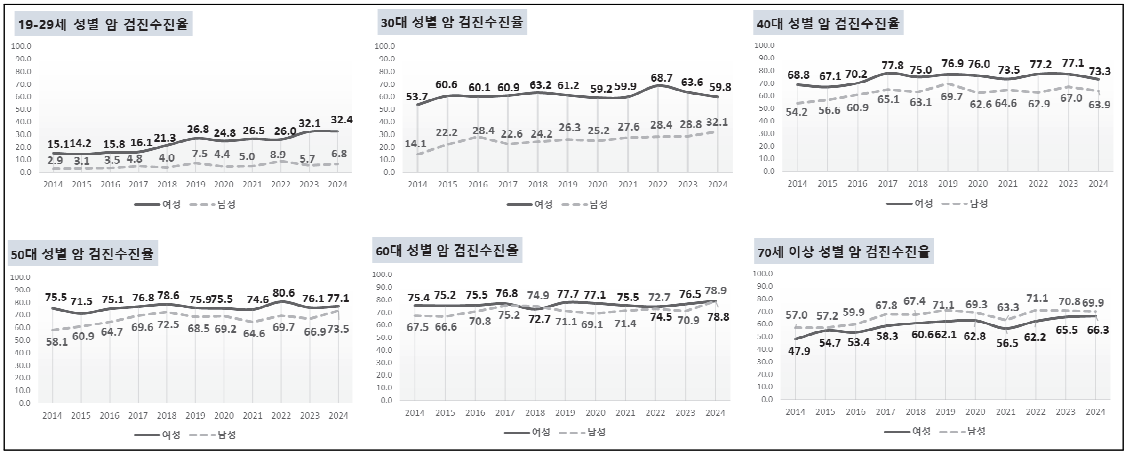


주 : 1) 암 검진수진율은 최근 2년 동안 암검진을 받은 분율
2) 19세 이상으로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5] 성별 암 검진수진율(2014-2024)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연령별 암 검진수진율을 살펴본 결과임.
  - 전반적으로 여성의 암 검진수진율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이며, 40대 이하에서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19~29세는 전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낮은 수준이지만 특히 남성의 암 검진수진율이 10% 이하로 낮은 편임. 30대부터 암 검진수진율은 남녀 모두 높아져 40~60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70세 이상에서는 낮아짐.
  - 2024년 암 검진수진율은 남녀 모두 50~60대에서 높은 수준이며, 19~29세에서 여성 32.4%, 남성 6.8%로 가장 낮게 나타남. 50대 이하 여성의 암 검진수진률은 남성보다 높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30대 27.7%p, 19~29세 25.6%p로 큰 편임. 60대는 남녀가 비슷한 수준이며, 70세 이상은 남성의 암 검진수진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음.
  - 2014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남녀 모두 암 검진수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2014년과 비교해 여성은 19~29세(17.3%p), 70세 이상(18.4%p)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남성은 30대(18.0%p)의 증가폭이 큰 편임.

(단위: %)



주 : 1) 암 검진수진율은 최근 2년 동안 암검진을 받은 분율
2) 19세 이상.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림 16] 성별 암 검진수진율(2014-2024)

•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